

## 부에노스아이레스, 'Climate Action Plan 2050'에서 탄소배출량 80% 감소 목표

[https://www.buenosaires.gov.ar/sites/gcaba/files/pac\\_resumen\\_ejecutivo\\_eng\\_0.pdf](https://www.buenosaires.gov.ar/sites/gcaba/files/pac_resumen_ejecutivo_eng_0.pdf)

<https://cities-today.com/how-buenos-aires-plans-to-halve-emissions-by-2030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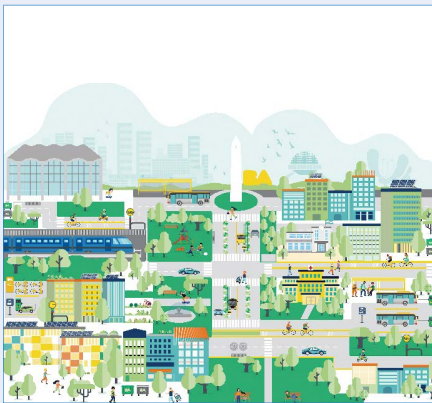
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도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담아 'Climate Action Plan 2050'을 발표하였다.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3%를 줄이는 데 이어 2050년까지는 84% 줄이고 탄소중립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Climate Action Plan 2050은 ▲공공공간과 녹지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준비성 있는 도시 ▲휴먼스케일로 계획되고,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도시 ▲에너지의 효율적 사용,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추구하는 저탄소 도시 ▲계획에 따른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포용적인 도시 이상 네 가지를 큰 골자로 하여 24개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.

특히 2030년까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 4분의 3이 대중교통과 비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 2050년까지 전체 주거용 건물의 80%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라 개조되고, 신축 건물의 70%는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. 또 2025년까지 10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고, 2030년까지 새로운 보행자 구역 15개를 추가 시행하며, 2050년까지는 모든 버스를 무배출 시스템화(zero emission)한다는 계획이다.

모든 주민이 녹지공간까지 평균 400m 거리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조정하고, 도시 내 48개 지역에 커뮤니티 모임과 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거리를 조성하게 된다. 자전거 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, 2023년까지 하루 100만 번의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이다.

호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타(Horacio Rodriguez Larreta)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"이번 계획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공간 확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,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에 두고 휴먼스케일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"라고 설명하였다.



### Climate Action Plan 2050 비전

출처: City of Buenos Aires. (2021). Climate Action Plan 2050(Executive Summary). [https://www.buenosaires.gov.ar/sites/gcaba/files/pac\\_resumen\\_ejecutivo\\_eng\\_0.pdf](https://www.buenosaires.gov.ar/sites/gcaba/files/pac_resumen_ejecutivo_eng_0.pdf)(검색일: 2021. 6. 4.)